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명순·하정희*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정서표현 갈등,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 및 관계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독립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표현갈등,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관계적 자아해석은 표현갈등, 심리적 안녕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우울, 정서표현 갈등, 심리적 안녕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정서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고, 관계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또한 매개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정서표현 갈등, 우울, 심리적 안녕감

* 충북대학교

I. 서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적어도 한번쯤은 하고 살게 된다.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나를 기술하는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Mead는 ‘자기’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역할을 취한 결과로 학습되는 것이라 하였고, James는 우리가 맺는 사회관계나 물질적 소유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의 개념 또한 다이아몬드처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 보았다(한덕웅 외, 2004: 89-103).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처한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이는 문화적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자이를 구분하는 시각을 제안한 연구 중의 하나가 Markus와 Kitayama(1991)로서 이들은 자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문화권에 따라 자아해석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개인이 자기 자신과 타인,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적응의 양상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해석(self-construal)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서양문화권에서 우세한 ‘독립적 자아해석’ 방식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자기는 타인과 분리된 독자적인 실체이고, 자기만이 갖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타인과 구별되는 속성들)발견하여 표출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도모 하게 된다. 그들의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동기적 처리과정에서)은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내적 특성으로서의 독특함을 나타내며 자기, 타인과 구별된 자신을 확인 했을 때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본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 소속하여 타인과 상호의존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 이렇듯 Markus와 Kitayama(1991)가 자아해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반면에 Cross, Bacon과 Morris(2000)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방

식을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서구권의 ‘관계 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집단의 소속감이나 사회적 역할에 의해서 자아를 정의하는 비서구권의 ‘집단 지향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Kashima 등(1995)과 Brewer와 Gardner(1996)도 자아해석을 ‘독립적 자아해석’과 특별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적 측면’,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집단적 측면’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Cross 등(2000)이 제안한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관점을 적용하여, 독립적 자아해석 및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해석 양식은 다양한 정서적 고통(emotional distress)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되는데, 먼저 자아해석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yun(1997)은 한국계 미국인의 자아해석 양식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울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으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우울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Okazaki(2000)는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과 백인 대학생의 정서적 고통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독립적 자아해석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낮았으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우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다소 다르게 일본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leinknecht(1997)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 간에 부적인 관련성을 보여준 반면에 상호 의존적 자아해석과 우울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했다(Norasakkunkit & Kalick, 2002 재인용). 한편, 베트남계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am(2003)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경향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우울 점수가 낮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자아해석과 우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아해석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비교적 일관되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더 강하게 예측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여된 정서가 삶의 만족도를 더 강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Diener & Diener, 1995; Kitayama & Markus, 2000; Suh, 2002). Kwan 등(1997)의 연구에서는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성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자아해석 양식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독립적 자아해석은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특히 독립성이 강조되는 서구의 문화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만이 정서적 고통이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정서적 고통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아무런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서구의 문화에 입각한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 문화에서는 관계성이 강조되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또한 적응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 문화차 연구에서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집단지향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구분 없이 상호의존적 자아해석만으로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아해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적 고통, 특히 우울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자아해석을 적응과 관련지어 살펴본 것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ross 등(2000)의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아해석과 우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 관계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자아해석이 우울이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아해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울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러한 과정변인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갈등’을 제시하였다.

자아해석 양식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정서 또한 사회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은 정서에 관한 상식적 개념을 분석해 보면 쉽게 도출된다(Markus & Kitayama, 1991). 정서에 대한 상식적 개념은 특정 정서에 대한 공통적인 선행조건의 인식(Smith & Ellsworth, 1987), 쾌락적 색조 같은 내적 핵심속성의 인식(Shaver, Schwartz, Kirson, & O'Connor, 1987) 및 이와 연결된 행동경향(예: 접근 또는 회피)의 인식(Frijda, Kuipers, & ter Schure, 1989) 등 세 가지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특정 정서에 관한 이러한 상식적 개념은 개인의 기억 속에 도식이나 전형(prototype)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러한 정서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근거로서 작용한다(Markus & Kitayama, 1991). 이때 문화에 따른 자기해석의 차이로 인해 개인으로서의 자기가 주의의 초점

이 되느냐(개인주의 문화) 아니면 타인이 주의의 초점이 되느냐(집단주의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정서의 선행조건과 그 속성 및 이와 연결된 행동 등 정서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상식적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러므로 결국 문화유형, 특히 각 문화에서의 자기의 해석체계에 따라 정서의 체험조건, 체험되는 정서의 종류, 빈도 및 강도 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조공호, 2003, 재인용). 이처럼 자기에 대한 해석은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본적으로 정서는 우리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김인자, 2004: 116), 이러한 모든 정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Baumeister & Tice, 1987). 정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서표현에 관련되어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식이 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과 관계됨을 보여 주었다(Katz & Campbell 1994; Pennebaker & O'Heeron 1987).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일이나 정신적 충격을 당했을 때 이를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에 덜 걸린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Bell과 Byrne (1978)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는 억압형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민감형보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덜 호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Pennebaker와 그의 동료들은(1987)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을 털어놓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한 사람이 이후의 건강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밝힘으로써 정서표현 자체만으로는 병의 원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설명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 그 자체보다 정서표현에 대한 동기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갈등이 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과 심리·신체적 질병과의 관련을 연구한 결과 정서표현보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 심리와 신체적 안녕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고, 정서표현 갈등이 많을수록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 했다(Emmons & Colby, 1995; Katz & Campbell, 1994). 이렇듯 정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고, 양면적 감정을 많은 신경증적 증상의 기초로 보았던 Freud(1917)이후 많은 연구들은 정서표현 갈등이 심리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서표현 갈등은 심리적응 뿐 아니라 자아해석 방식과도 관련된다. 즉,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내적 속성들을 가지는 정서들-분노, 좌절감, 자부심과 같은 자아-중심정서(ego-focused emotions)의 특성을 보이고, 자아-

중심정서(ego-focused emotions)들에 집중하며 그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이들에게 정서적 표현이란 문자 그대로 분노, 슬픔, 공포와 같은 내적 감정을 표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우리나라 문화상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중심적 감정을 표현했을 경우 이것이 거부되거나 제재된 경험이 많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욕구와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 속에서 표현 욕구에 갈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립적 자아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정서표현 갈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고통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동정, 대인관계의 느낌, 수치심과 같은 타인-중심적 정서(other-focused emotions)의 관점을 취하며 그들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 민감하게 된다. 상호의존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정서적 표현은 공적인 수단적 (public instrumental)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자기-중심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Markus & Kitayama, 1991). 이처럼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서표현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먼저, 독립적 자아해석 방식 및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방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 방식 및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방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해석 방식과 우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아해석 방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아해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4]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방 법

조사 대상자는 충청지역에 있는 학생 309명이 대상이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답한 9명의 자료를 빼고 30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남 156명, 여 144명). 설문조사 일부는 수업장면에서 단체로 수업시간 중 일부를 하려 받아 실시하였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했다. 소요시간은 15~25분 사이였다.

1. 측정도구

(1)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

Singelis(1994)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 중에서 자아해석 척도만을 사용할 것이다. 이 척도는 -내 일차적 관심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독특하기를 원한다-등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9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희정과 조혜자(2003)가 번안한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를 사용 할 것이다. 번안된 척도는 점수의 범위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12~72점이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9였다.

(2) 관계적 -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

Cross 등(200)이 만든 관계적 -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 (RISC)는 자아를 정의하는데 친밀한 관계가 포함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친밀한 관계는 <내가 누구인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친한 친구나 가족을 생각한다.-등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개월 간격의 검사 - 재검사 신뢰도는 .73이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방희정과 조혜자(2003)가 번안한 관계적 -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번안된 척도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11~66점이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이었다.

(3) 정서표현 갈등질문지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갈등 질문지(AEQ)를 하정(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10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 갈등 18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안을 당할까봐 두렵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느낌을 표현하고 싶지만,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등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7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하정(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 .88, 부정적 정서표현 갈등 .85, 전체 척도는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점수의 합을 정서표현 갈등 점수로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4) 우울감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 CES-D)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문항은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설쳤다.-등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이 4개, 부정적인 문항이 16개로 Likert식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더욱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5)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PWSB)를 Ryff 등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김명소 등(2001)이 문항 분석을 통해 분석한 46문항을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척도는 6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차원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다.

Ryff(1989)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자아수용 .93, 긍정적 대인관계 .91, 자율성 .86, 환경에 대한 지배력 .90, 삶의 목적 .90, 개인적 성장 .87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점수의 합을 심리적 안녕감 점수로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III. 결 과

1.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 자아해석, 정서표현 갈등과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독립적 자아해석, 관계적 자아해석, 정서표현 갈등,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된 변인들 간의 Pearson적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독립적자아해석·관계적 자아해석, 정서표현 갈등,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r) (N=300)

변 인 (M, SD)	1	2	3	4
1. 독립적 자아해석 (46.17, 7.09)				
2. 관계적 자아해석 (38.25, 4.7)	.19*			
3. 정서표현 갈등 (121.33, 24.51)	-.27***	.17**		
4. 우울감 (37.24, 9.92)	-.21***	-.05	.42***	
5. 안녕감 (180.27, 25.5)	.56***	.19***	-.39***	-.54***

* $p < .05$, ** $p < .01$, *** $p < .001$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적 자아해석은 관계적 자아해석($r=.19, p < .05$), 안녕감($r=.56,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표현갈등($r=-.27, p < .001$), 우울감($r=-.21, p <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관계적 자아해석은 표현갈등($r=.17, p < .01$), 안녕감($r=.19, p < .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감($r=-.05, p > .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독립적 자아해석을 많이 할

수록 정서표현 갈등과 우울이 적어지고 심리적 안녕감이 커지며, 관계적 자아해석을 많이 할수록 정서표현 갈등이 커지지만 심리적 안녕감 역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울에 있어서도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독립적 자아해석과 방향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앞서서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 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므로, 이들 두 자아해석 간의 수준에 따른 우울감, 정서표현 갈등,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 점수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 둘 다 높은 집단:1, 독립적 자아해석은 높고 관계적 자아해석은 낮은 집단:2, 독립적 자아해석은 낮고 관계적 자아해석은 높은 집단:3,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 모두 낮은 집단:4) 우울, 정서표현 갈등,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수준에 따른 우울감, 정서표현 갈등,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검증

항 목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Duncan
우울감	1	34.51	8.71	4.85*	1,2<3,4
	2	35.35	9.49		
	3	38.70	10.38		
	4	39.52	10.10		
	합계	37.24	9.92		
정서적 표현 갈등	1	116.42	25.81	9.09**	2,1<4,3
	2	109.75	25.24		
	3	128.92	21.01		
	4	125.52	22.68		
	합계	121.33	24.51		
심리적 안녕감	1	197.58	23.27	38.02**	4<3<2,1
	2	190.54	21.29		
	3	173.65	22.85		
	4	164.28	19.11		
	합계	180.27	25.46		

주. 1 =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 모두 높은 집단 78명
 2 = 독립적 자아해석은 높고 관계적 자아해석은 낮은 집단 52명
 3 = 독립적 자아해석은 낮고 관계적 자아해석은 높은 집단 84명
 4 =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 모두 낮은 집단 83명
 * $p < .01$, ** $p < .001$

〈표 2〉를 통해 보면, 우울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우울감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둘 다 낮거나 관계적 자아해석만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관계적 자아해석보다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우울감이 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표현 갈등 역시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정서표현 갈등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둘 다 낮거나 관계적 자아해석만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서표현 갈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관계적 자아해석보다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감과 같이 정서 표현 갈등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모두 높거나 독립적 자아해석만 높은 집단, 관계적 자아해석만 높은 집단,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모두 낮은 집단의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모두 높은 경우나 독립적 자아해석만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을 보다 덜 느끼고 표현갈등이 더 적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갈등을 매개로

독립적 자아해석 및 관계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른 회귀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세 번의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그리고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1)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들어야 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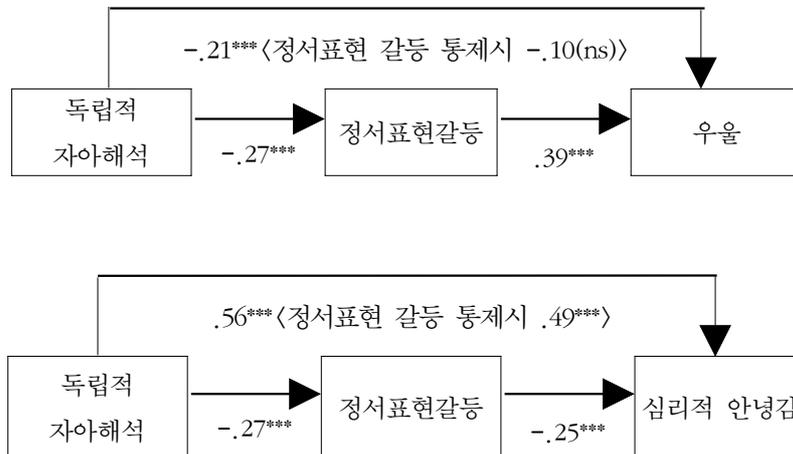
결론지을 수 있다(Kenny, 2001). 이에 Baron 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정서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 및 관계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1)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서표현 갈등을 매개로

정서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독립적 자아해석은 매개변인으로 정서표현 갈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beta = -.27, p < .001$), 독립적 자아해석이 종속변인인 우울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beta = -.21, p < .001$), 정서표현 갈등이 우울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beta = .39, p < .001$). 또한 독립적 자아해석은 정서표현 갈등을 통제하였을 때 우울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여($\beta = -.10, ns$) 정서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 사이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적 자아해석을 많이 할수록 정서표현 갈등이 낮아지게 되고, 정서표현 갈등이 낮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독립적 자아해석은 정서표현 갈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beta = -.27, p < .001$), 독립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 또한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beta = .56, p < .001$), 정서표현 갈등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beta = -.25, p < .001$). 그러나 독립적 자아해석은 정서표현 갈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이를 Sobel(1982)이 제안한 방식(1)으로 계산했을 때,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는 $b = 1.77$ 로 직접효과 $b = 2.02$ 보다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z = 3.97, p < .001$). 따라서 정서표현 갈등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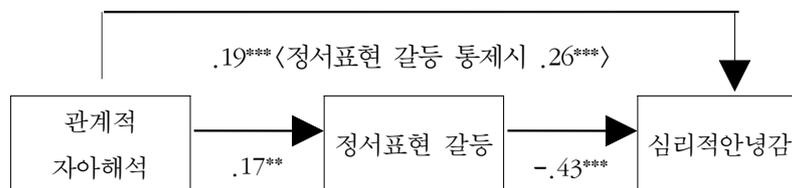


[그림 1]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
 (* $p < .05$, ** $p < .01$, *** $p < .001$)

2) 관계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서표현 갈등을 매개로

관계적 자아해석과 우울 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아 관계적 자아해석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 검증은 생략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관계적 자아해석은 정서표현 갈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beta=.17, p < .01$), 관계적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 또한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beta=.19, p < .001$), 정서표현 갈등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beta=-.43, p < .001$). 그러나 관계적 자아해석은 정서표현 갈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beta=.26, p < .001$). 이를 Sobel(1982)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관계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는 $b=10.70$ 는 직접효과 $b=7.71$ 보다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z=-2.66, p < .001$). 따라서 정서표현 갈등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관계적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
 (* $p < .05$, ** $p < .01$,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독립적 자아해석 및 관계적 자아해석과 정서표현 갈등,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자아해석과 이들 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표현갈등,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관계적 자아해석은 심리적 안녕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표현갈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설명하듯이, 독립적 자아해석이 정서적 고통 및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Belle, 1982; Cross & Madson, 1997; McGrath, Keita, Strickand, & Russo, 1990; Norasakkunkit, 2003).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우울과 사회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에 유의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과 백인 대학생의 정서적 고통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낮았으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우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 Okazaki(2000)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정서표현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심리적 안녕감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것이 표현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심리적 안녕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인 특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것이 표현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 안녕감 측면에는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관계적 자아해석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아의 개별성과 관계성의 어느 한쪽을 희생해 다른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제한하게 된다고 말한 Cushman, 1990; Dolinger, Preston, O' Brien, & DiLalla, 1996, Helgeson, 1994; Sampson, 1988 등(김동직 & 한성열, 1998 재인용)의 주장에 근거해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의 수준을 고려한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모두 높은 경우나 독립적 자아해석만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을 보다 덜 느끼며 표현갈등이 더 적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고른 발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임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아해석만 높은 경우보다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높을 때 보다 긍정적 요소를 보여 준다.

셋째, 정서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 방식 및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방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 갈등이 독립적 자아해석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매개역할을 했고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역할을 함을 볼 수 있었다. 즉, 독립적 자아해석을 많이 할수록 정서표현 갈등을 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을 덜 느끼고 심리적 안녕감은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부분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관계적 자아해석 그 자체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될 뿐 아니라, 관계적 자아해석을 많이 할수록 정서표현 갈등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적 자아 해석을 많이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크게 느끼지만,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이 정서표현 갈등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정서 표현 갈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관계적 자아는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였고 정서표현 갈등에 있어서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가 부정적인 결과와 주로 관련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써,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관계적 상호의존적 자아양식을 가질 경우에 정서표현 갈등이 증대되긴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크게 느낄 수도 있는 등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독립적 자아해석만이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둘 다 높은 집단 또한 독립적 자아해석만 높은 집단과 함께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독립적 자아해석을 많이 하는 것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의 두 가지 자아해석이 함께 고르게 발달 하는 것 또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 그자체로 우울이나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표현 갈등이 자아해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상담 및 교육장면에 적용시켜 보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아해석 방식에 따라 그들의 우울이나 심리적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 하여 내담자의 자아해석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적 자아 해석을 많이 하는 내담자나 관계적 자아해석을 많이 하는 내담자 모두에게 정서표현을 다루어주는 것은 중요한데, 특히 관계적 자아해석을 많이 하는 내담자들은 정서표현으로 인한 갈등이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들에게 정서표현 문제를 더욱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담자는 독립적 자아해석을 주로 하는 내담자들이 정서표현으로 인한 갈등이 적을 것이고, 이로 인해 우울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일반화에 제한 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적 자아 해석과 관계적 자아 해석이 문화차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서구의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에 주 초점을 맞추었으나, 우리나라가 급격한 문화의 변화 속에서 살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이 어린 청소년층과 중년 후반의 성인층은 본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을 다르게 하여 연령 간, 집단 간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후 주

- 1) Sobel(1982)의 제안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0보다 큰지의 여부는 Z검정으로 가능하다.

$$Z = \frac{b_1 \times b_2}{\sqrt{b_1^2 \times Se_1^2 + b_2^2 \times Se_2^2}}$$

여기서 b1과 Se1은 독립변인(독립적 자아해석 또는 관계적 자아해석)으로 매개변인(정서표현 갈등)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이고, b2과 Se2는 매개변인으로 종속변인(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직, 한성열(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인자(2004). *적응심리*. 서울: 한국 심리상담연구소.
- 방희정,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2005). 한국남녀 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의 암묵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189-210.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조궁호(2004).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한덕웅·성한기·강혜자·이경성·최훈석·박군석·김금미·장은영(2005).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하 정(1996).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umeister, R. F., & Tice, D. M.(1987). Emotion and self-presentation. In R. Hogan & W. H. Jones (Eds.), *Perspective in Personality*(Vol. 2, pp. 131-200). Greenwich, CT: JAI Press.
- Bell, P. A., & Byrne, D.(1978). Repression-sensitization. In H. London & J. E.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pp. 449-485). New York: Willey.
- Bell, D. (1982).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Beverly Hills, CA: Sage.
- Brewer, M. B., & Gardner, W.(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94-103.
- Cross, S. E., & Madson, L.(1997). Models of the self: Self- 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y Bulletin*, 122, 5-37.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2000).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e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Emmons, R. A. & Colby, P. M.(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6.
- Hyun, K. J.(1997). An independent self a requisite for asian immigrant?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S.?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Society for Social Work Research*, 156-160.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C., Gelfand . M. J., & Yuki, M.(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atz, I. M., & Campbell, J. D.(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13-524.
- King, L. A. & Emmons, R. A.(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tayama, S., & Markus, H. R.(2000).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ealization of sympathy: Cultural patterns of self,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13-161). Cambridge, MA: MIT press.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Grath, D., Keita, G. P., Strickland, B. R., & Russo, N. F.(1990). *Women and depression: Risk factors and treatment issue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rasakkunkit, V.(2003). *Self- construals priming and emotional distress: Testing for cultural biase in the concept of distres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Office of Graduate Studies and Researc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 Okazaki S(2000),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differences on affective distress symptoms. Do symptom reports differ across reporting method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5), 603-625.
- Pennebaker, J. W., Hughes, C. F., & O'Heeronm, R. C.(1987). The psychophysiology of confession: Linking inhibitory and psychosomatic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81-793.
- Ryff, C. D., & Keyes, C. L.(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ingelis, T. M.(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Was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uh, E. M.(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1378-1391.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trual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Yang, Mung-sun·Ha, Jung-He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 among independent self-construal,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on undergraduate. It was further to identif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s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self-construal,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ee-hundred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t self-construa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depression, and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t was non significant with depression. Secondly, level of self-construal difference was significant on de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ly, ambivalence over emotional mediated 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mediated relations betwee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limit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noted.

Key Words : independent self-construal,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투고일 : 10월 27일, 심사일 : 12월 8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